



최우선기차
고객중심
[금융]
진옥동 신한은행장
“손익보다 신뢰
선 넘는 도전하자”
05



Life

[산업]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美 주지사들과
친환경 비전 공유
08



지리산 정취 즐기며 면역력 업그레이드 산 좋고 물 맑은 산청서 ‘웰니스 관광’ 어때요

메트로 트래블

경남 산청은 예로부터 ‘삼청’의 고장으로 ‘산이좋아 산청, 물이맑아 산청, 사람이 좋아 인청’으로 유명한 곳이다. 산청은 지리산 정정골 자락에서 자생한 1000여종 약초로 동의보감을 쓴 허준 선생을 비롯한 수많은 명의를 배출한 곳으로 ‘대한민국 웰니스관광25선’으로 선정된 동의보감촌을 중심으로, 도시와는 거리가 먼 고즈넉한 정취를 즐길 수 있는 요소들이 많다. 느긋한 마음으로 일상에서 지친 심신의 위로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 ‘산청’이 최상의 건강 면역력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관광지다.

전 세계와 국내가 코로나바이러스로 시끌벅적한데, 건강한 음식과 기 치료 체험, 족욕, 한방 뜸 등 면역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 찾아갔다.

◆산청 동의보감촌

산청 동의보감촌은 동의보감의 저자 허준의 세계전통 한의학을 테마로 조성된 한방 웰니스 관광지다. 이곳은 2001년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관광지로 전통 한방휴양관광지(한의학 박물관, 한방 기체험장, 한방테마공원, 숲속수영장 등), 동의본가, 한방자연휴양림이 조성되어 있으며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념 국제 행사인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氣산 힐링여행 1번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방기체험장

한방기체험장(석경, 귀감석, 복석



산청 동의보감촌 전경.

/이민희 기자

허준 등 수많은 명의 배출한 ‘산청’ 한의학 테마로 동의보감촌 조성

기순환체조·왕뜸체험·약초스파 등 전통한방 경험하고 지친 몸에 활력



웰니스 관광 거점공간 ‘동의본가’에서 한의원, 한옥체험, 한방스파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정, 동의전)에서는 한의학에서 가장 근본적인 요소인 좋은 기(氣)를 활용한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즐거운 기 체험을 할 수 있어 동의보감촌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최고 인기 스팟이다.

동의보감촌 중 동의전 안을 들어가게 되면 하늘의 기운을 받는 석경, 땅의 기운을 받는 귀감석, 복을 담은 그릇 복석 정 3석의 기바위가 있으며 3곳을 다 돌며 기를 받아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는 내용도 담고 있어 이곳을 찾은 관광객이 줄지어 기를 받고 있는 곳이다.

◆동의보감촌 한방힐링 프로그램

한방온열 체험은 온열기에서 나오는 원적외선과 음이온으로 내 몸을 해독하는 온열 체험 프로그램으로 동의전 2층에 위치한다.

어의·의녀복입기 체험은 드라마 ‘허

준’, ‘대장금’에 나오는 어의·의녀복을 입고 동의보감촌 탐방을 하는 체험이다.

기혈순환체조는 힐리스트와 함께하는 내 몸의 기와 혈을 순환시키는 건강 체조이고 주말에 한정해 진행된다.

◆동의본가 한방힐링체험

‘동의보감장수비결 체험(장수베개+배꼽뜸)’은 동의보감에 소개되어 있는 대표적인 장수 비법으로 숙면을 돕는 약초를 넣은 장수 베개(신침)를 베고 한옥 온돌방에 누워 배꼽에 황토로 만든 ‘왕뜸체험’을 통해 심신의 건강과 휴식을 갖는 것이다.

약침싸기는 동의보감의 대표 처방 십전대보탕·쌍화탕을 옛날식 약침 방식으로 싸보는 체험으로, 포장한 약침은 집에서 실제로 탕과 차로 달여 먹을 수 있다.

약초스파는 지리산의 맑은 물에 스테

미너, 여성 건강, 피부 치료, 피부 미용 등에 도움이 되는 여러 약초를 넣어 약초스파를 즐기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향기주머니 만들기는 정신을 맑게 하고, 잠을 잘 자게 하며, 비염에 좋은 약초 등 자신의 몸에 맞는 약재를 예쁜 북주머니에 담아 일상생활에서 한방아로 마 효과를 온전히 느낄 수 있다.

전국자치단체 최초로 한약관련자료 전시와문화체험 공간을 갖춰놓은 ‘한의학 박물관’은 400년 전 허준이 저술한 ‘동의보감중간본’ 실물이 전시되어 있는 등 우리나라의 전통한방에 대한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체득·경험 할 수 있는 곳이다.

조선시대 한의원에서 사용했던 인체의 모형도를 기본으로 인체신형장부도, 곱·호랑이·침 조형물, 심이지신상 분수광장 등 3만여㎡에 인체와 한의학적인 이야기를 테마로 한 휴식 공간인 ‘한방테마공원’과 해발 400m의 청정한 숲속의 유아를 동반한 관광객이 지하수를 이용한 세미 워터파크 기분을 느낄 수 있는 ‘숲속 야외수영장’ 등이 조성되어 동의보감촌을 찾는 관광객들이 마음껏 휴식을 취하면서 지친 몸과 마음에 활력을 불어주는 곳이다.

이재근 산청군수는 “요즘 같은 힘든 시기에 한방 향노화 산업의 메카, 힐링 관광의 중심지 산청에 방문해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웰빙음식과 기운충전을 위한 웰니스 관광도 즐기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산청(경남)=이민희 기자 lnh@metroseoul.co.kr

/취재 협조: 산청군

친환경도시·황홀한 경관... 청정유럽으로 떠나볼까

일성여행사 ‘오붓이유럽’ 상품 출시

요즘 길에는 많은 사람들이 답답한 마스크를 쓰고 다닌다. 마스크를 벗어 던지고 떠날 수 있는 곳이 어디 없을까 고민하는 여행자들에게 꼭 알맞은 상품이 있다. 일성여행사 유럽 브랜드 ‘오붓이유럽’이 새 유럽 청정상품 ‘친환경 도시 프라이부르크, 청정 스위스와 콜마르 7일’ 상품을 9월 400만원 중반대에 내놨다.

◆독일의 친환경 도시 프라이부르크

자유Frei의 도시라는 뜻을 가진 프라이부르크는 독일 남서부 서쪽의 강과 숲 그리고 자연이 어우러진 독일의 ‘친환경도시’·‘생태도시’·‘녹색도시’로 유명한 곳으로 공해 발생과 자연 파괴를 줄여 인간이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해 조성되는 도시를 말한다. 이곳에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첨탑이라는 찬사를 받기도 하는 300년에 거쳐 완성된 고딕 양식의 프라이부르크 대성당이 있다.



3개의 성이 있는 스위스 벨린초나.



스위스 뇌샤텔호.

/오붓이유럽

◆헤르만 헤세의 마을, 몬타놀라

맑은 호수로 둘러싸인 스위스 남부의 호반도시 루가노는 취리히보다 밀라노와 더 가깝고 이탈리아어를 사용한다. 루가노에서 버스를 타고 몬타놀라로 갈 수 있는데 헤르만 헤세가 40년간 살았던 곳으로 헤르만 헤세 박물관과 무덤이 이곳에 있다.

◆스위스 숨은 진주 뇌샤텔

뉴캐슬이라는 뜻의 뇌샤텔은 스위스와 프랑스의 특색이 어우러진 작은 도시로 뇌샤텔 호숫가에 위치한다. 아름답게 빛나는 호수와 알프스의 몽블랑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평화로운 곳이다. 특별히 볼거리가 뇌샤텔 성, 붉은 교회, 뇌샤텔 호수 등이 있다.

◆알자스 지방 콜마르와 스트라스부르 하울의 움직이는 성의 배경지로 작지만 아름다운 경관을 지닌 프랑스 동쪽 알자스 지방에 위치한 콜마르는 프랑스에서도 아름답기로 유명한 곳이다. 17세기 프랑스령이 된 후 1871년 독일에 병합되었다가 제 1차 세계 대전 후 다시 프랑스령으로 복구되어 프랑스와 독일 문화가 섞여 있어 독특한 문화를 향기를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이민희 기자

NHN여행박사

혼행족 취향저격 ‘터키일주’ 상품 내놔

이스탄불서 트로이까지 7박9일 일정 추가비용 없이 1인 1객실·1일자유일정

종합여행사 NHN여행박사(대표 박임석)이 지난해 1인 패키지 예약 내용을 분석한 결과, 전년 대비 예약률이 가장 많이 상승한 여행 상품은 아프리카(700%)에 이어 터키(578%), 몽골(200%), 러시아 및 북유럽 연계(154%)순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상위 순위에 포함된 지역들은 대중교통이 다소 불편하거나 치안, 언어 장벽 등으로 선뜻 혼행을 나서기 쉽지 않은 곳이라 자유여행보다 패키지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아프리카, 몽골 등은 지난해 취향 항공편이 늘어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수요가 급증했다.

올해도 혼자 여행을 떠나는 ‘혼행’ 트렌드가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여행박사가 1인 세대를 겨냥한 ‘나 혼자 패키지’ 상품을 출시했다. 1인 패키지 예약 시 숙소, 식사 등에 대한 불편함을 줄인 패키지여행이다.

나 혼자 패키지로 출시한 첫 번째 상품은 ‘터키 일주’ 상품이다. 이스탄불에서 시작해 카파도키아, 안탈리아, 파묵칼레, 쉬린제, 에페소, 트로이를 둘러보는 7박 9일 일정이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이스탄불까지 대한항공 직항을 이용하며 일정 중에서 가장 긴 이동 구간인 이스탄불-카파도키아 구간은 빠른 항공 이동으로 이동 시간을 줄여 여행 피로도를 낮췄다.

무엇보다 나 혼자 패키지의 장점은 숙소에 있다. 여행박사 ‘나 혼자 패키지 터키 일주’는 혼자 가도 싱글룸을 사용하고 여럿이 함께 가도 각자 싱글룸에 숙박하는 상품이다. 전 일정 특급호텔 숙박으로 온천호텔 1박이 포함됐다. 이스탄불에서는 1일 자유일정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 터키에서 인생샷 명소로 꼽히는 스타벅스 베벡점, 블루모스크, 카파도키아, 파묵칼레, 트로이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진다. 상품가는 129만 원부터다. /이민희 기자